공감과 공존을 위한 유학의 인터리그 : 근대 유학자 이보림과 변시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league of Confucianism for Empathy and Coex-istence

서정화 **Junghwa Suh**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발표는 지역과 학맥을 뛰어넘어 학문의 지평을 확장한 근대의 유학자 월헌(月軒) 이보림(李普林, 1903~1972)과 산암(汕巖) 변시연(邊時淵, 1922~2006)의 사례를 통해 지역 감정과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퓌라모스와 티스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새드 엔딩 연애사의 대표적 인물이고, 이 모티프가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재탄생한다. 이는 오래된 그리고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불과 몇 십 년 전에도 의성 김씨와 기계 유씨는 색목(色目)이 다르다며 혼인을 반대하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였다. 반목과 질시, 배척이 연애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붕당(朋黨) 또는 당파(黨派)라는 미명하에 학문의 진위를 떠나 상호 비난하고 멸시하였고 나아가 살육으로 번지기까지 했던 것이 조선의 흑역사였고, 이의 근저에는 '학맥(學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배타적 학맥을 뛰어넘어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공존과 상생을 실천한 유학자들도 많았다. 실례를 들어보겠다. 남인(南人) 학맥의 거두인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인데, 유성룡의 고제(高弟) 중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있다. 서인(西人) 학맥의 거두인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고제 중에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이 있었다. 정경세와 김집은 남인과 서인으로 당파가 다름에도 관계가 돈독하였다. 김집에게는 세 명의 고제가 있었는데,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였다. 이 중 송준길은 정경세의 사위가 되어 남인과 서인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색(黨色)이 공고화되던 시대에도 교류를 통한 공존은 면면이 이어졌고, 근현대에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경남 김해의 유학자 이보림은 1920년 봄 군산 앞바다 계화도(繼華島)에 은거하고 있던 간재(艮齋) 전우(田愚)를 찾아가 그 문도가 되었다. 간재 문하에서 혁재(赫齋) 서진영(徐震英), 양재(陽齋) 권순명(權純命), 현곡(玄谷) 유영선(柳永善) 등과 학문을 강마하다가, 간재가 별세하자 서진영을 따라 변산의 진계정사(眞溪精舍)로 가서 학문을 익히다가 호서의 망화재(望華齋)로 석농(石農) 오진영(吳震英)을 찾아가 그 학문을 전수받았다.

변시연은 본관은 황주(黃州), 호는 산암(汕巖)이다. 그는 1922년 장성에서 태어났고, 줄곧 장성에서

활동한 호남 지역의 대표적 근현대 유학자이다. 그런데 그는 퇴계의 정통 학맥을 계승한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의 손제자 홍치유(洪致裕) 문하에서 학문을 강마했다. 1958년 전국 유림에 통문(通文)을 돌려 전통 시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32면 만에 문원(文苑) 을 완성한다.
본 연구단의 아젠다는 근현대 유교문화가 집중 탐구 대상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근현대 유학자 중에서 교류와 공존을 몸소 실천한 두 유학자의 삶과 자세, 가치관을 탐색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공존의 인간학'을 모색하는 시금석을 삼고자 한다.

Abstract

This presentation aims to find a way to overcome regionalism and group egoism and a way for win-win coexistence through the examples of YI Borm (penname: Wolheon/1903-1972) and BYEON Siyeon (penname: Sanam/1922-2006), both being early modern Confucian scholars who went a long way to extend the horizon of academic learning going beyond regionalism and academic affinity.
Pyramus and Thisbe are leading figures appearing in a Greek myth with a sad love story. The story provided motif for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Such a story existed even in Korea. Just decades ago, a young man and woman from Euiseong GIM Clan and Gigye YU Clan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but faced the stiff opposition of those of the clans, who viewed the other as those never being able to mingle with them. Animosity, jealousy, and rejection exist not only in a love story. During the Joseon period, those in different factions accused and looked down on each other, failing to put the truth in academic learning first. Such a status led even to massacres. Academic affinity was what lay at the bottom of such a status.
Nonetheless, there were other Confucian scholars who put the goal of win-win coexistence, recognizing and exchanging with those with different ideas rather than confining themselves within the boundary of those with concurring ideas. One of their leading examples was YU Seongnyong (penname: Seoae), a disciple of YI Hwang (penname: Toegye) of Namin School. One of the highly praised disciples of YU was JEONG Gyeongse (penname: Ubok). Another example was GIM Jip (penname: Sindokjae), one of the distinguished disciples of YI I (penname: Yulgok) of Seoin School. JEONG Gyeongse and

GIM Jip belonged to different academic school, but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GIM had three good disciples, i.e. SONG Jungil (penname: Dongchundang), SONG Siyeol (penname: Uam), and YI Yutae (penname: Choryeo). SONG Jungil married a daughter of JEONG Gyeongse and served as a connecting channel between the two different academic schools. Like this, efforts for coexistence with those with differing ideas were made persistently even in the period when factionalism was solidly in place.
YI Borim, a Confucian scholar from Gimhae, Gyeongnam took trouble to take a trip to JEON U (penname: Ganjae), who lived as a hermit in Gyehwa Island off Gunsan, Jeonbuk in the spring of 1920, and became his disciple. He studied together with SEO Jinyeong (penname: Hyeokjae), GWON Sunmyeong (penname: Yangjae), YU Yeongseon (penname: Hyeongok) under JEON U. Upon the teacher's demise, he and SEO Jinyeong relocated to Jingyejeongsa in Byeonsan and then became a disciple of O Jinyeong (penname: Seongnong) in Manghwajae, Hoseo.
BYEON Siyeon (penname: Sanam) was born in Jangseong in 1922 and carried out activities there as a Confucian scholar representing Honam. He studied under HONG Chiyu, a grand-disciple of GIM Heungrak (penname: Seosan), who inherited Toegye's academic tradition. In 1958, he sent a circular to Confucian scholar across the country to collect classical Chinese writings and published Munwon, a collection of such writings in 32 years.
Considering that our main object of research is Confucian culture of early modern period, this presentation was focused on the lives, ways of living, and values of the two Confucian scholars, who put the goal of exchanges and coexistence into practice, as a touchstone for searching for people who looked for ways of coexistence.

1. 머리말

본 발표는 지역과 학맥을 뛰어넘어 학문의 지평을 확장한 근대의 유학자 월헌(月軒) 이보림(李普林, 1903~1972)과 산암(汕巖) 변시연(邊時淵, 1922~2006)의 사례를 통해 지역 감정과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퓌라모스와 티스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새드 엔딩 연애사의 대표적 인물이고, 이 모티프가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재탄생한다. 이는 오래된 그리고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의성 김씨와 기계 유씨는 색목(色目)이 다르다며 혼인을 반대하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였다.

반목과 질시, 배척이 연애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붕당(朋黨) 또는 당파(黨派)라는 미명하에 학문의 진위를 떠나 상호 비난하고 멸시하였고 나아가 살육으로 번지기까지 했던 것이 조선의 흑역사였고, 이의 근저에는 '학맥(學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배타적 학맥을 뛰어넘어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며 공존과 상생을 실천한 유학자들도 많았다. 실례를 들어보겠다. 남인(南人) 학맥의 거두인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인데, 유성룡의 고제(高弟) 중에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있다. 서인(西人) 학맥의 거두인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고제 중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있었다. 정경세와 김장생은 남인과 서인으로 당파가 다름에도 관계가 돈독하였다. 김장생에게는 세 명의 고제가 있었는데,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였다. 이 중 송준길은 정경세의 사위가 되어 남인과 서인의 가교 역할을 했다. 당색(黨色)이 공고화되던 시대에도 교류를 통한 공존은 면면이 이어졌고, 근현대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본 연구단의 아젠다는 근현대 유교문화가 집중 탐구 대상이다. 따라서 본 발표는 근현대 유학자 중에서 교류와 공존을 몸소 실천한 두 유학자의 삶과 자세, 가치관을 탐색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공존의 인간학'을 모색하는 시금석을 삼고자 한다.

2. 공감과 공유: 학맥간 교류의 역사적 연원

학맥과 붕당으로 점철되었던 조선후기를 지나 한말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한말의 학맥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호계열의 경우 이항로(李恒老)를 중심으로 한 화서학파(華西學派), 박세화(朴世和)를 중심으로 한 의당학파(毅堂學派), 송병선(宋秉璿)을 중심으로 한 연재학파(淵齋學派), 전우(田愚)를 중심으로 한 간재학파(艮齋學派), 기정진(奇正鎭)을 중심으로 한 노사학파(蘆沙學派)가 있었다. 영남계열에서는 김도화(金道和)를 중심으로 한 정재학파(定齋學派), 이진상(李震相)을

중심으로 한 한주학파(寒洲學派), 장복추(張福樞)를 중심으로 한 사미헌학파(四未軒學派), 허전(許傳)을 중심으로 한 성재학파(性齋學派)가 있었다. 이 학파들은 결속력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계보도 뚜렷하고 학파의 특성도 분명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학파를 중심으로 상대 학파의 사상과 지향을 반박하고 재반박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기호학파인 간재학파와 영남계열인 한주학파의 의리실천에 관한 논쟁을 비교하거나 같은 영남계열의 한주학파와 정재학파의 심즉리(心卽理)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치열한 논쟁과 비판 속에서도 이들은 함께 교류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는데, 그 연원은 조선 중기로 소급된다.

1) 문학 교류

- 매학정(梅鶴亭)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에 있는 정자이다. 매학정 관련 작품을 남긴 문인들을 보면 면앙정(俛仰亭) 송순(宋純, 1493~1583)이나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496~1568)은 호남인이며, 구암(龜巖) 이정(李楨, 1512~1571)과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 1517~1563)은 영남인이며, 율곡 이이는 기호인이다.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이 있는가 하면, 소론의 중심인물인 우재(迂齋) 조지겸(趙持謙, 1639~1685)도 있고, 남인 선비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 1585~1664)도 있다. 매학정을 이우(李瑀)가 소유하였으니 기호 노론계열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지만, 그 정자의 소재지가 영남이기 때문에 영남의 문인들도 이곳을 방문하여 다양한 작품을 남겼던 것이다. 매학정은 시대와 학파, 당파를 아우르는 문화적 공존과 공감, 상생을 이룬 공간이었다.
- 만취정은 김위(金偉, 1532~1595)가 건립한 것으로,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조선시대는 南原府 阿山坊)에 건립되었다. 현재의 만취정은 1874년에 중건된 것으로 원래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임실군 삼계면 산수리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에 온돌을 놓았고, 재실(齋室)인 첨모재(瞻慕齋)를 추가로 건립하여 추모 및 강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6호이다. 만취집 에 수록된 김위의 시 중에서 만취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로 오언절구 「정상10영(亭上10詠, 만취정10영)」 10수, 칠언절구 「정상4절(亭上4絶)」 4수, 칠언율시 「정상원운(亭上原韻=만취정)」 2수가 있다. 그리고 권5에는 김위와 수창하거나 김위의 시에 차운한 시들이 '제현시(諸賢詩)'라는 항목으로 실려 있는데, 만취정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는 기대승(奇大升), 고경명(高敬命), 임기(林芑), 송순(宋純), 임제(林悌), 권응인(權應仁), 양대박(梁大樸), 이달(李達), 정염(丁焰), 황정길(黃廷吉), 정엄(鄭淹)의 시가 있다. 이들은 16세기 중후반의 학술사와 문단을 주름 잡던 문인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권응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응인은 서자(庶子)임에도 당대의 걸출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권응인의 송계집(松溪集) 에는 김위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는 데다 그는 星州 출신으로 퇴계와 남명을 모두 스승으로 받들며 경상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만취정」과 「만취정10영」을 모두 읊은 사실을 감안하면 김위와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임기는 임필(林苾)이라고도 하며 호는 수호자(垂胡子)로 전등신화(剪燈新話) 에 주를 달았고, 시문에 능했다고 한다. 다만 단명한 데다 문집이 없어 김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권응인과 함께 鄭士龍(1491~1570)에게 시를 배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2) 문화 교류

- 낙동강은 강의 좌안과 우안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좌우를 '소통'시킨다. 영남 문인들은 기호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갔다.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제자로 남인인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노론인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을 사위로 맞았고, 영남의 학자 황기로(黃耆老, 1521~1567)는 기호의 학자 이우(李瑀, 1542~1609)를 사위로 맞이한 것과 같이 강안지역에서는 혈연적 소통도 이루어졌다.

- 지리산에 은거하던 조식(曺植, 1501 1572)과 속리산에 은거하던 성운(成運, 1497 1579)과의 친교를 주목할 만하다. 성운의 대곡집(大谷集) 과 조식의 남명집(南冥集) 의 시 부분에는 상호에게 주고받은 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환한 편지 역시 다수 발견된다. 이황은 "성운이 조식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으니 조식은 드높고 뛰어났는데, 성운은 순박과 화평으로써 조절하였다."라고 평했다. 1530년에 성운은 조식이 공부하던 김해의 산해정(山海亭)으로 찾아가 조식을 만나고 조식과 함께 송계(松溪) 신계성(申季誠, 1499 1562), 황강(黃江) 이희안(李希顔, 1504 1559), 청향당(淸香堂) 이원(李源, 1501 1568) 등과도 교류했다.

- 紫山書院은 기축옥사 때 죽은 정개청을 배향한 서원으로 1616년에 설립되었다. 이 서원의 건립 역시 정개청의 문인인 나주 나씨 집안의 나덕윤(羅德潤) 등이 주도하였다. 그러다 1657년 송준길 등의 주장으로 갑자기 훼철되었다가 이듬해 윤선도가 「국시소(國是疏)」를 올려 자산서원의 훼철이 국가의 원기를 해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울러 그는 이 상소에서 정개청을 옹호하면서 그의 학문이 이황에 버금간다고 주장하고 서원의 훼철을 주도한 송준길을 비판하는 등 남인계 호남사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윤선도가 1659년 1차 예송으로 귀양을 가게 됨으로써 서원복립운동도 주춤해졌다가 1674년 2차 예송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1677년 허목과 권대운 등의 제청으로 다시 복설되고 이듬해 '자산서원'이라 사액을 받았다. 남인의 정치적 부침과 함께 자산서원의 훼철과 복설도 궤를 같이 했다.(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지역과 학맥을 넘나드는 경우의 예시임.)

3) 학술 교류

나이를 초월한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의 학술 토론과 존숭, 이황과 이이(李珥)의 방문과 친교, 노수신(盧守愼)과 이이의 학문적 정치적 교류와 존숭 관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강재항(姜再恒, 1689~1756) 안동 사람으로, 윤증(尹拯, 1629~1714)의 문인인 큰아버지 강찬(姜鄭)에게 수학하다가 윤증의 문하에 나아갔으며, 윤증 사후에는 윤동원(尹東源, 1685~1741)·권구(

權絿)·신익황(申益愰) 등과 교유하면서 소론의 학통을 이었다.

- 영남지역의 노사학파는 영남 사림들이 기호학통 계통의 인물들과 활발히 교유하면서 형성되었다. 19세기 초중반 함양의 정여창(鄭汝昌) 가문과 장성의 김인후(金麟厚) 가문이 혼반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양의 사림들이 기정진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함양의 정여창 가문과 가까운 산청의 여흥민씨 가문을 비롯해서 진주의 조성가(趙性家), 최숙민(崔琡民)이 찾아오고, 합천에서 정재규(鄭載圭) 등이 찾아오면서 노사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주학파는 이진상이 허유(許愈) 등에게 비로소 적극적인 강학활동을 전개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영남 서부 지역은 오랫동안 퇴계학설의 영향이 깊은 곳으로 이진상의 심즉리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진상은 자신의 심즉리설이 주자와 퇴계설의 근본 취지를 계승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진상이나 그의 문인들은 정재규와의 논쟁을 통해 호남의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기정진으로부터 자신들의 학설을 입증받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진상의 호발설(互發說)이나 명덕(明德), 지각설(知覺說) 등이 기정진에 의해서 검토되었고, 이진상이나 허유, 곽종석 등은 기정진의 학설 중에 사단칠정을 리발(理發)로, 명덕을 리(理)로, 지각을 리의 작용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남 지역 노사학파는 지각설이나 심설에 대해서 이진상의 학설과 밀착되게 되어 기정진의 학설이 더욱 주리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영남지역 노사학파와 한주학파는 이진상 사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노사학파의 조성가와 최숙민, 정재규, 그리고 한주학파의 허유, 곽종석 간에 밀접한 교분이 있게 되었다. 특히 정재규는 허유와 함께 삼가(三嘉)지역의 학문을 이끌면서 함께 조식을 크게 선양하였으며, 곽종석과도 자주 성리학과 시국에 대해 토론하였다.

- 김종직의 문인 중에 나주 출신 최부(崔溥)가 있다. 무오사화 때 스승인 김종직의 문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단천에 유배되었으며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처형되었다. 최부는 해남 정씨와 결혼한 것을 계기로 처향인 해남으로 옮겨 살게 되는 데 그곳에서 사위인 유계린(柳桂隣)을 비롯하여 윤효정(尹孝貞), 임우리(林遇利) 등을 가르쳐 김종직의 학문이 호남지역에 전해지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최부계열은 16세기 중반 호남의 학맥·인맥이 송순계열과 서경덕계열로 재편될 때 서경덕 계열에 속하였으며 17세기에 가서는 남인계 호남사림(호남남인)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계맹(李繼孟)의 경우 김일손·남효온 등과 교유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김종직의 학문이 전해지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 영남을 대표하던 곽종석(郭鍾錫, 1846 1919)과 충청을 대표하던 김복한(金福漢, 1860 1924)은 한말 일본과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시기의 대표적 실천 유림이었다. 곽종석은 성리학자이자 애국지사로서, 퇴계학파를 계승한 이진상의 문인이다. 그의 학맥은 이황 → 김성일(金誠一, 1538 1593) → 장흥효(張興孝, 1564 1633) → 이현일(李玄逸, 1627 1704) → 이재(李栽, 1657 1730) → 이상정(李象靖, 1710 1781) → 유치명(柳致明, 1777 1861) → 이원조(李源祚,

1792 1871) → 이진상으로 내려오는 정통주리설의 학맥이다. 김복한은 김상용(金尙容)의 12대 종손이다. 그의 학맥은 이이 → 김장생 → 김집 → 송시열(宋時烈) → 권상하(權尙夏) → 한원진(韓元震) → 정혁신(鄭赫臣, 1719 1793) → 이건운(李健運) → 이돈필(李敦弼)로 내려오는 기호학파의 정통이다. 1919년 3월 김복한과 곽종석은 함께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청원한 파리장서(巴里長書)를 발송하였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3. 공생과 공존: 교육활동과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이보림과 변시연은 명망가 집안 출신이다. 이는 자신의 지역적 색채를 지닌 학파를 떠나 상대 학파의 거유(巨儒)와 사승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기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학문 활동을 재개할 때 수없는 난관에 부딪쳤다.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 곧 갈등과 화해를 겪은 뒤 지역에서 다시 명망 있는 유학자로 자리 매김한 것에서 '공존'의 실마리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간략한 생평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본격적인 연구는 차후에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다.

1) 이보림의 교육활동

- 경남 김해의 유학자 이보림(1903~1972)은 본관은 전주, 자는 제경(濟卿), 호는 월헌(月軒)이다. 경종조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여주에서 김해로 피난한 소요재(逍遙齋) 이춘흥(李春興)의 7대손이다. 그는 1920년 봄 군산 앞바다 계화도(繼華島)에 은거하고 있던 간재(艮齋) 전우(田愚)를 찾아가 그 문도가 되었다. 간재 문하에서 혁재(赫齋) 서진영(徐震英), 양재(陽齋) 권순명(權純命), 현곡(玄谷) 유영선(柳永善) 등과 학문을 강마하다가, 간재가 별세하자 서진영을 따라 변산의 진계정사(眞溪精舍)로 가서 학문을 익히다가 호서의 망화재(望華齋)로 석농(石農) 오진영(吳震英)을 찾아가 그 학문을 전수받았다.

- 일제의 식민통치가 강화되어 단발령을 내리고 호적을 새로 고치는 등의 압제가 가속화되자, 수사선도(守死善道)의 일념으로 굴하지 않고 서재를 열어 원근의 학도들을 모아 가르쳤는데, 집이 좁아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였다.

- 그는 석담과 화양동으로부터 유래하는 담화종지(潭華宗旨)를 평생의 학문 규범으로 삼았는데, 「지심설(持心說)」과 「사유제왕지책론(士有帝王之責論)」 등의 잡저에 그 학문 특색이 잘 드러나 있다. 해방 후에도 윤리를 부식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문집인 [월헌집(月軒集)] 16권

이 간행되었다.

2) 변시원 문원 편찬과 동류의식

- 변시연(1922~2006)은 본관은 황주(黃州), 호는 산암(汕巖)이다. 그는 1922년 장성에서 태어났고, 줄곧 장성에서 활동한 호남 지역의 대표적 근현대 유학자이다. 그런데 그는 퇴계의 정통 학맥을 계승한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의 손제자 홍치유(洪致裕) 문하에서 학문을 강마했다.

- 1958년 전국 유림에 통문(通文)을 돌려 전통 시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32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90년 전 73권의 文苑 을 완성하였다. 수록 인원 2,000여 명에 6,700편의 시문이 실려 있는 이 책은 조선 초기 서거정 등이 역대 시문을 집대성한 동문선(東文選) 이래 가장 방대한 한국 시문집으로 꼽힌다.

- 1980년대 중반 손룡정사라는 학당을 세우고, 한국고문연구회를 만들어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자신의 시문을 모은 산암전고(汕巖全稿) 32권도 남겼다.

참고문헌

김봉곤, 「嶺南地域에서의 蘆沙學派와 寒洲學派의 成立과 學說交流」, 孔子學 14, 韓國孔子學會, 2007.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韓國漢文學硏究 53, 한국한문학회, 2014.
김문준, 「영남 유학과 기호 유학의 소통 사례와 지역갈등 융화 방안」,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2017.
고영진, 「조선시대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 嶺南學 6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서정화, 「전북 임실의 만취정(晩翠亭)과 제영시 연구」, 어문논집 89, 민족어문학회, 2020.